

광주시의회 예결위 진통 끝 구성

민주-국민의당 5대5 참여... 위원장은 민주당 맡아

파행 막았지만 '밥그릇 싸움' 비난 피할 수 없을 듯

광주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갈등으로 구성에 애를 먹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위원 총수를 1명 늘려 예결위 파행은 막았지만 예결위 선임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위위원회에 서미정(민·비) 의원을 선정하고 예결위에는 민주당의 경우 김영남·주경남·김동찬·조세철 의원, 국민의당은 김민중·조영표·박춘수·문태환·심철의

의원 등 10명을 선임했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예결위원 1명 증원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기존 9명인 예결위원 수는 1명 늘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 5명씩 임명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반수 정당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지만 예결위 파행을 막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예결위원 과반을 요구했던 데서 한 발짝 물러나 양당이 같은 수로 활동하기로 의견을 모아 민주당에 제시했다.



서미정 위원장



유정심 위원장

서미정 신임 예결위원장은 "특위활동기간 소속위원들과 함께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결산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시의원 22명 중 9명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예결위원 과반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시의원이 12명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양당 대립이 격화됐다. 추경안 심의를 위해 민주당이 예결위 구성에 앞서 상임위를 단독으로 강행하자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또 광주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정심(민·남2) 의원을 선임했고, 위원으로는 김영남·김용집·문상필·박춘수·반재신·심철의·이미옥·이정현 의원 등을 선임했다.

유정심 윤리특별위원장은 "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해 광주시의회의 청렴성을 시민 눈높이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산구 '블라인드 채용' 정부 방침보다 먼저 시행

울 1월부터 제도 운영 스펙보다 사람 우선

응시자 "신선한 충격"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채용 시 생애지와 출신학교 및 학력 등을 사전에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광주 광산구의 앞선 행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는 이번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보다 6개월 앞선 지난 1월부터 각종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가 지난 1월 새로운 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응시자들의 광산구가 지난 1월 새로운 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응시자들의 사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광산구의 제도는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로 줄이고, 면접에서도 직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 출생지, 출신학교와 전공, 가족 관계 기재란을 없앴다. 그 대신 법정 취업 가능 연령 여부와 근무 경력,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수상 기록 등을 응시자가 적도록 했다.

면접 단계도 대폭 손질했다. 서류에 공개한 정보 외에 혼인여부, 종교, 장

에, 병력, 성적 지향 등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학력은 직무와 관련한 전공과 연구 경력에 초점을 맞추고, 최종 학력과 출신 학교에 대한 질문은 금했다. 이 같은 방식은 분청뿐만 아니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구 직원 사회복지시설도 준수하고 있다.

새롭게 바꾼 채용 절차로 지난 3월부터 구 직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유길원 씨는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민간 회사나 다른 기관에 비해 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이 절반으로 줄어 번거롭지 않았고, 다른 요소 없이 경력과 능력만을 적극 부각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면접관으로 수차례 참여한 엄미현 인권을 보장하고,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아 숨은 능력을 펼칠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광산구의 제도는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로 줄이고, 면접에서도 직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 출생지, 출신학교와 전공, 가족 관계 기재란을 없앴다. 그 대신 법정 취업 가능 연령 여부와 근무 경력,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수상 기록 등을 응시자가 적도록 했다.

광산구는 '스펙'보다 사람과 능력을 우선하고, 차별을 없애고 자존감을 보장하는 채용절차가 행정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정의로움 조지 문화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10일 광주시 동구 용산공원에서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성환 동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주민들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데 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455억 들여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기공

봉선·방림동, 용산지구 안정적 수돗물 공급

광주시 남구 봉선·방림동 일대와 동구 용산지구에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일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 윤장현 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김성환 동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시·구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기공식을 했다.

봉선배수지 건설은 남구 봉선, 방림동 일대와 동구 용산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북호와 주암호 원수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용연정수장과 덕남정수장을 연결하는 환상형 송수관을 설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455억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21억원은 용산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서 부담한다.

배수지 규모는 2만3000t이며, 환상형 송수관 연장은 10.5km다. 공사는 2018년까지 봉선배수지와 송·배수관로 6.0km를, 이어 2단계로 2020년까지 송수관로 4.5km를 설치한다.

1단계로 봉선배수지가 건설되면 용산지구에 대한 급수공급이 가능해지며, 봉선지구 일대는 직접급수에서 간접급수 방식으로 전환된다. 직접급수는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간접급수는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근 지역 수업을 균등하게 유지해 누수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광주시는 또 봉선배수지 인근 기존 산책로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배수지 상부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급차 하루 평균 173건 출동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광주 시민 2만2000여명이 올 상반기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0일 상반기 3만1409건을 구급 출동, 모두 2만2400명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건(1.1%) 늘었다. 하루 평균 173.5건(전년 170.6건)으로 8.3분마다 출동했다.

구급 유형별로 질병이 1만3721명(61.3%)으로 10명 중 6명이었으며 사고와 부상 5084명(22.7%), 교통사고 2천705명(12.1%), 기타 890명(3.9%) 순이다.

구급차 이용이 많은 지역은 서구 쌍촌동(1285건)으로 4.1%를 차지했으며 북구 두암동(1224건), 서구 화정동(1140건), 북구 운암동(1075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거주 인구나 유동인구가 많고 상부지구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구급출동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남2지구 영구임대주택

광주시, 입주자 모집

광주시는 10일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광산구 하남2지구 영구임대주택 거주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세대는 2개동(棟) 414가구다. 주거전용 면적을 적용해 30㎡는 330가구, 40㎡는 84가구다.

이 가운데 24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공급된다.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 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이 1순위로 배정된다.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일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0-682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4면 발행·호보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장성군, 복분자 고사 미스터리 규명 나선다

장마·폭설직후 피해 많아

농약분석 기관 연구용역 의뢰

장성군이 복분자가 고사하는 연작장애 원인 규명에 나선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 300여 농가가 노년 최대 면적인 80여ha의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다. 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장성 복분자 명품화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장미과의 다년생 식물인 복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사하는 연작장애 발생해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 복분자의 경제수령은 6~7년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3년도 안 돼 고사하는 사례가 많다. 재배면적의 70% 이상이 한꺼번에 죽는 해도 있을 정도다.

장마나 집중호우, 폭설 직후에 고사 피해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분자가 검은 물을 흘리며 말라죽으면 농

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나무를 모두 없애고 새 묘목을 심어야 한다. 묘목 가격, 인건비, 생산 지체 등을 고려하면 재배능력이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복분자 연작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병해충에 강한 묘목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장성군은 이번 용역에서 1년 동안 연작장애가 발생하는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 미생물 등을 조사해 이상이 없는 토양과 비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복분자 작물의 영양분을 조사하고 무병 건전 묘목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복분자 재배능력의 상당수가 연작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분자 고사 미스터리를 규명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마음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

66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